

不況의 原因과 72年 景氣展望

金 永 佑

<全國經濟人聯合會調查部次長>

1. 景氣異常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어느 物體를 막론하고 휴식 없이 계속 동작을 강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대답은 대부분이 「無理하게 된다」라는 것일 거다. 우리가 계속되면 고장이 잦게 되고 고장이 너무 많으면 제아무리 튼튼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그 수명은 빨리 끝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物理的 原理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극히 상식적인 例示에 불과한 설명이겠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 無理를 잘 지지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無理를 훌륭히 克服하며 試行錯誤를 겪어내는 가운데서의 苦衷을 忍耐와 勇氣로써 이겨내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無理를 이겨내기란 주어진 與件과 그 對應策을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일 것이다.

69年末을 起點으로 하여 韓國經濟는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 종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安定化政策이 다각적으로 시행되었고 또 長期化됨에 따라 이에 적응하려는 企業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 진통의 형태가 우선 資金事情硬化 현상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企業收支의 激減을 招來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60年代에 구가할 수 있었던 高度成長을 70年代에도 계속할 경우 韓國經濟는 無理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이 累積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때 우리는 다시 한번 安定化政策의 採擇이 얼마나 필요하였던가를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緊縮으로 나타난 經濟不調 현상을

「不況」이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解決策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상을 메워온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현재의 狀況으로 볼 때 景氣의 不調가 嚴存하고 있다는 점만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이 景氣不調가 꼭 安定政策의 波及 영향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다른 要因에 보다 큰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分析한 다음에 新年度의 景氣를 내다 보는 것이 論理上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실 緊縮政策이 그 내용면에서 얼마나 철저했느냐에도 문제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流動性 증가의 鈍化—需要減退—過剩生産—過當競爭—景氣不調를 결과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또한 여기에 한국 경제의 不調理한 脆弱點이 加勢 發顯됨으로써 構造的 景氣異常 현상이 發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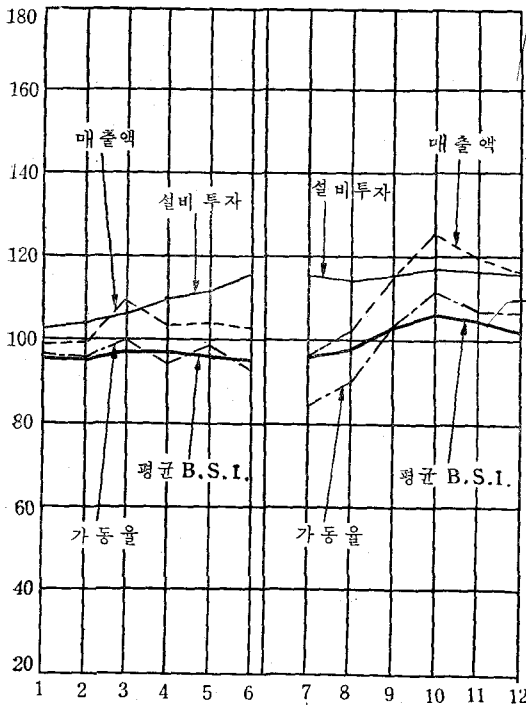
1) 對內的 原因

첫째로 65~69年間 年平均 12%를 上廻하던 高率成長의 결과로 景氣가 過熱化됨에 따라 이를 鎮靜시키기 위한 緊縮政策이 실시되었다. 특히 緊縮의 범위가 金融, 財政, 外換 등 綜合的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購買力低調로 需要減退 현상과 購買者市場化가 지나치게 促進되었다.

이러한 需要減退는 다시 몇가지 原因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데 ① 景氣動向의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할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가 鈍化되자 建設景氣가 크게 後退되었다는 點이며 ② 全般的인 購買力減退 현상이 특히 機械工業, 自動車工業 등 生産財를 생산하는 所望產業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서 이들 業體

의 활동이 더욱 沈滯되었고 ③ 過當競爭, 過剩投資로 인한 市場構造의 質的 변화라 할 것이다. 즉 종래까지 seller's market 형태를 이루던 市場構造가 供給過剩, 競爭激化 등에 따라 buyer's market 형태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으며 ④ 所得構造의 分極化傾向으로 인한 購買力集團의 斷層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敷衍한다면 有效需要의 뒷받침이 없는 低所得階層(潛在需要集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음)과 製品價格 보다는 高級商品에의 消費選好가 큰 高所得層間에 乖離가 나타나고 있으며 大多數의 成長企業은 需要對象을 이 高所得의 消費製品生産에 置重 운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生産 및 消費構造의 불합리한 요인이 결국에는 緊縮과 더불어 過當競爭에 따른 市場減退傾向으로 인하여 景氣對策의 根源方案을 마련치 못한 채 企業存立을 위한 出賃經營을 恣行하였다는 점이다.

71년도 製造業部門의 月別 經營指標



資料 : 韓國生産性本部

둘째로 코스트 푸시 요인에 의한 原價上昇要因을 들 수 있겠다. 諸般 對內外 與件이 타이트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賃金を 비롯한 金利, 公共料金, 税金, 油類, 米價 등은 여전히 上昇趨勢를 보여 經營收支의 압박은 물론 企業原價高를 觸發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다 할 것이다. 이러한 企業原價高와 더불어 당국의 物價安定을 위한 價格抑制政策 또한 企業收支를 더욱 激減케 작용하였고 그 결과 인플레이 가운데서 企業收支惡化라는 異常景氣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세째, 6.28 換率引上措置로 받게 된 韓國經濟의 충격이라 하겠다. 兩次開發計劃을 통하여 조달된 막대한 海外資金이 償還期來到에 따라 입게 된 타격은 심히 크다 할 것이다. 換率引上措置로 인하여 輸出業體가 어느 정도 採算性的 補填을 받았다는 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主要 所望産業과 戰略産業의 外資導入을 감안할 때 輸入原材價格의 상승과 元利金償還追加負擔의 加重을 招來함으로써 對外依存的 經濟體質이 深化된 韓國經濟로서의 영향은 매우 컸으며 이것이 인플레이 속에서의 景氣不調를 낳게 한 원인을 형성한 것이라 評價된다.

2) 對外的 原因

60年代 初에만 해도 國際收支赤字란 생각할 수 없었던 美國經濟가 輸出競爭力의 弱化傾向과 더불어 越南戰의 長期化, 각종 對外援助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國際收支의 赤字를 示顯하였을 뿐 아니라 日本, 歐洲 등 先進諸國의 刮目할 만한 伸張으로 야기된 弗貨 위기는 마침내 國際經濟秩序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外資導入型 輸出伸張에 主導되어 오던 韓國經濟의 발전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美國의 만성적인 인플레이 억제와 國際收支改善을 중심으로 하여 취해진 8.15 너스 經濟非常措置는 世界經濟의 一大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종래까지 美國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여 오던 國際資本市場이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한 國際資本 移動與件의 硬化現象, 특히 美國의 國際收支改善을 목적으로 한 10% 輸入附加稅 新設 및 西海岸 부두 노조의 파업 등이 下半期 우리나라 輸出에 至大한 沮害 原因이 되었다. 더우기 美國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일기 시작

한 保護貿易主義의 世界化 傾向은 전반적으로 企業家들의 投資擴張을 留保시키는 結果를 낳았으며 이의 影響이 景氣沈滯를 誘導하게 된 心理的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輸出對象國의 큰 비중을 占하고 있는 美國의 景氣後退가 준 影響이라 하겠다. 生産性을 앞지르는 勞賃上昇과 이를 圍繞한 賃金 罷業 등으로 景氣不調를 면치 못하였던 美國의 景氣沈滯는 우리나라 輸出産業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合板, 假髮 등의 輸出不振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특히 韓美 纖維類輸入規制雙務協定에 따른 波及이 景氣不調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主要經濟 및 經營指標 (單位: %)

	65	66	67	68	69	70
都 賣 物 價	10.0	8.8	6.4	8.1	6.8	9.1
通 貨 量	33.2	30.1	42.6	24.8	45.6	40.6
GNP成長率	7.4	13.4	8.9	13.3	15.9	9.7
總資本利益率	7.9	7.5	6.77	5.33	3.67	2.62
自 己 資 本 率	15.5	16.5	17.01	16.05	13.57	10.56
賣 出 額 純 利 益 率	8.2	7.7	6.74	5.96	4.31	4.01

資料: 韓國銀行, 評價敎授團報告書

세째, 越南戰의 終息化 傾向과 駐韓美軍의 減縮에 따른 貿易收支 및 貿易外 收支의 減退效果라 하겠다. 69년까지만 해도 海外部門에서 通貨量增發의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던 對越 貿易 및 貿易外 收入이 70년에 들어 와서부터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또한 駐韓美軍의 減縮計劃으로 인한 影響이 景氣不振에 미친 影響을 가버이 보아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2. 지금의 景氣不調를 어떤 類型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景氣動向이 美國 등 一部先進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볼 때 歐美先進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景氣樣相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같은 類型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需給構造가 크게 변동치 않고도 賃金 등 코스트 푸시로 인플레이가 發生하며 이에 따라 企業의 收益率이 低下, 設備投資 減退를 結果함으로써 失業이 발생하고 반면에 資金需要의 상승은 계속되며 物價의 昂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景氣沈滯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合成語로 景氣後退 내지 높은 비율의 失業과 인플레이션의 共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60년대 후반부터 美國과 주요 유럽 諸國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과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으며 또 그 構造上의 差異點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景氣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60년대 후반에 歐美 諸國에서 일어났던 景氣樣態는 設備投資의 減退로 成長率이 鈍化된 채 企業收支가 低下되고 따라서 去來는 不調를 계속하며 높은 비중의 失業率이 존재하는 인플레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構造的으로 볼때 몇가지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結論을 내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景氣樣相을 概括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企業經營의 外形의 指標라 할 수 있는 生産, 販賣活動은 다 같이 늘어나는 趨勢에 있으나 流動性 사정을 반영하는 現金, 當座預金의 保有動向은 하락하여 企業 전반적으로 볼때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 한편 새로운 民間設備投資의 增加는 눈에 띄일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主導에 의한 高率投資가 계속되었고 生産鈍化 내지 減縮에 따른 失業發生 이라기보다는 原價節減을 위한 企業合理化의 徵候가 보다 짙은 것이 현 雇傭問題의 특징이라고 일단 보여진다.

그러나 外形上의 指標가 好調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去來條件은 어느때보다 악화되고 있어

이것이 景氣不調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즉 企業間 信用인 外上賣出, 外上買入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外上賣出金의 回收期間이 연장되고 있음은 企業內部的 經營與件이 점점 어려워짐을 뜻하여 결과적으로 企業의 外部資金의 濼이 심화되어 金利負擔의 加중을 어쩔 수 없게 하여 景氣不振을 誘發케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企業經營與件의 어려움 속에서도 經濟成長率은 71年末 현재 10.2%의 伸張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企業成長率과 經濟成長率間의 大조적인 현상은 무엇보다도 工產品價格 抑制政策을 前提로 하여 輸入伸張과 外資導入에 의한 經濟개발을 추진한데 基因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企業收支의 激減이 景氣後退의 「푸른 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長期化할 때 한국 經濟의 持續的 成長은 未曾有의 難題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景氣現狀을 대충 살펴본 것은 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첫째, 歐美先進諸國의 景氣沈滯은 成長率이 鈍化된 가운데 전개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계속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스태그플레이션이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높은 失業率을 示顯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先進諸國이 보인 것처럼 급격한 雇傭減少를 示顯하고 있지 않으며 雇傭이 주는 原因을 市場狹少에 의한 것인가 企業의 經營合理化의 일단으로 볼 것인가가 뚜렷치 않다는 점.

셋째, 先進國의 인플레이가 均衡된 物資需給을 이루면서도 賃金壓迫 등 코스트 푸시 要因으로 인하여 物價가 상승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潛在的인 데먼드 풀이 經濟 구조의 底流에 깔려 있고 동시에 이에 걸친 각종 코스트 푸시 要因의 상승 작용으로 物價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企業收支가 惡化하는 複合的인 要因으로 인플레이가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에 隨

伴된 景氣不調樣相이 歐美에서 일어났던 스태그플레이션과 동일 類型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대로의 독특한 양상을 이룬 景氣局面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異常景氣現狀은 어디에 緣由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2次開發計劃期間 동안 계속되어 오던 높은 成長率이 70년에 들어와 갑자기 鎖靜化됨에 따라 나타난 過度的 현상으로 보여지며,

둘째, 產業政策上的 문제로서 시장성에 입각한 需要展望의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이루어진 상당수의 細分投資와 이들 企業體가 「規模의 經濟」 經營合理化, 經營戰略의 科學化 등을 경시한 放慢經營,

셋째, 國際收支逆調幅의 확대와 더불어 對外均衡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投資의 신중을 기하게 되는 등 심리적으로 景氣沈滯을 誘發케 하였으며,

넷째, 經營合理化와 原價節減을 위한 일련의 經營 근대화 전략이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됨에 따라 雇傭增加 템포가 鈍化되었고 특히 生産性提高를 위한 經營合理化가 外見上 不沉的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다섯째, 60년대 후반의 過熱景氣鎖靜을 위한 安定政策의 실시로 通貨金融의 擴大趨勢가 대폭 축소되어 이로 인한 企業流動性이 크게 硬化되었고,

여섯째, 金融事情의 악화와 더불어 企業의 金融費用增大, 租稅負擔, 賃金壓迫 등의 諸般經營與件이 企業收支에 크게 압박을 가했으며 이로 인한 企業의 활동 의욕이 크게 沮喪되었다 하는 점 일 것이다.

3. 72年度の 景氣展望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景氣不振에 대한 構造的인 원인을 대체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景氣對策은 이러한 71년도의 景氣異常 현상을 장기적이며 構造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이고 暫定的인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떤 局面에 처해 있는 景氣樣態로 규정할 것인가에 의해 대책 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전향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景氣不調樣相은 60년대의 高度成長에서 발생한 過熱景氣라는 後遺症을 치유하기 위한 安定政策의 실시로 인해 연유된 과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한편으로 이를 타개키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다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발전할 우려마저 보인다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① 安定政策의 轉換 과정에서 야기된 流動性的의 급격한 규제와 外資導入分의 償還期來到에 따른 與信增加의 海外部門吸收, 그 결과로 通貨量 增加率鈍化에 기인되는 企業資金 사정 변화 ② 製品價格 상승률을 앞서는 原價上昇,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購買者集團의 隔差擴大, 所望産業의 활동 부진과 戰略産業의 過剩投資 시설과 이로 인한 過當競爭 ③ 美의 對韓援助 削減과 越南戰의 終息化 경향에 따른 貿易外收支 감소로 인한 國際收支 전망의 불확실성, 특히 弗貨 위기를 圍繞한 國際經濟展望의 불투명 등이 대내외적 投資與件을 불안정케 한 심리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들 與件이 결코 장기화될 전망이 있을 만큼 비관적인 것으로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72년도의 經濟政策方向이 景氣刺戟의인 면으로 計劃적으로 운영되어 간다면 高率投資에서 생긴 부작용 제거를 위한 과도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이번의 景氣不調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72년도의 韓國經濟를 圍繞한 대외적 與件 변동의 예상에 비추어 景氣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대내적인 면을 보면

첫째, 72년도 國內經濟成長率이 9.0%로 계획되고 있는 바 이는 71년 實績 10.2%에 비하면 약 1.2% 정도 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成長率의 縮少策定은 投資需要의 減退와 더불어 그동안 景氣上昇의 主導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建設部門이 다시 활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需要低調를 誘導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로 成長目標의 鈍化趨勢와 더불어 또 하나의 需要低調를 예상케 하는 것은 通貨金融의

과소 공급이라 하겠다. IMF와 협정된 72년 상반기의 國內與信 증가 10%는 예년 수준보다 크게 뒤질 뿐 아니라 漸增하는 外債償還額을 감안할 때 72년도의 流動性 공급 사정 또한 예측을 불허할 것 같고,

세째, 신년도 예산의 膨脹規模에서 볼 때 租稅問題로 인한 企業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말미암아 企業의 資本蓄積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으며,

네째, 換率引上和 더불어 鐵道, 電氣料金の 인상 문제 등 公共料金の 인상은 코스트푸시 요인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관측되며 이와 더불어 당국의 물가 안정을 위한 인플레이 收束政策이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므로 企業收支는 여전히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다섯째, 안정화 정책의 持續에 따른 企業의 이에 대한 適應努力, 특히 企業合理化 운동의 본격적 전개는 人力活用的 再整備로 經營姿勢를 전환할 것 같으며 이는 成長率의 鈍化와 더불어 전반적인 雇傭計劃에 蹉跌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이며,

여섯째, 신년도의 産業政策方向이 防衛産業爲主로 전개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雇傭問題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며 工業化方向이 지금까지의 消費財工業 중심에서 生産財工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新規投資擴大, 聯關效果增大라는 밝은 면이 보이지만 이들은 資本懷妊期間이 긴 部門들이므로 資源配分이라는 점에서 볼 때 投資效率를 鈍化시킬 것이 전망되고,

일곱째, 경제 발전 속도의 加速化에 따라 市場構造가 종래의 販賣市場에서 購買者市場으로 변질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所望産業의 過當競爭, 過剩投資가 마찰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겠다.

그러나 대외적 여건으로 볼 때에는 대내적 여건에 비추어 본 것과 같이 그렇게 불투명한 전망만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첫째, 60년대의 과제로 남아오던 國際通貨의 혼란이 10個國財相會議를 중심으로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 美國의 달러를 7.89% 切下, 日本의 엔貨를 16.88%, 獨逸의 마르크를 13.57%, 佛蘭西의 프랑을 8.57%씩

切上하는데 合意를 봄으로써 國際經濟 正常化에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國際通貨危機의 해소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비록 輸入面에서 負擔이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切上國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輸出競爭力의 가능성과 더불어 市場多邊化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세째, 특히 美國의 輸入附加稅 철폐, 日本의 恩貨 16.88%의 切上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輸出 展望에 주는 영향이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신년도 景氣는 需要面에서 볼 때 72년도 상반기 DC 限度가 71년말 대비 10% 증가로 여기에서 借款元利金 償還負擔 가중으로 인한 海外部門에서의 通貨量還收를 빼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한편 財政執行에 있어 確定豫算의 5% 節減方向에서 歲出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 등은 전반적인 流動性 부족 현상을 결과치 않을까 우려되며 이것이 결국에는 通貨 흐름의 硬化 현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一部業種에 있어서의 過剩投資, 過當競爭은 인플레이가 만연하는 가운데 코스트 푸시의 加勢로 企業收支의 압박을 초래할 것이며 防衛産業

分野에서의 일부 新規投資가 예상되나 대부분 企業에 있어서는 市場膨脹의 鈍化와 過剩細分投資로 設備投資의 증가는 현격하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對外去來에 있어 輸入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日本의 恩切上 등 輸入物資價格 상승으로 原資材의 國產化와 더불어 産業構造的 측면에서의 原資材 需要構造的 변동이 요청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진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輸出은 國內輸出産業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國際通貨의 多角調整에 따른 國際經濟의 정상화 접근과 美國의 景氣回復, 外換率 切上圈에의 輸出與件好調로 市場多邊化와 함께 輸出의 획기적인 伸張을 기대해 볼 만하며 이것이 景氣主導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72년도의 經濟政策基調에도 가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71년의 景氣局面을 잠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도 문제가 있는 고로, 더우기 政府가 어떠한 景氣 對應策을 어느 정도로 강구할 것인가에 따라 新年度經濟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그 展望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近着外國圖書

● INDUSTRIAL WORLD, November 1971

- * Special Report: Container Making
 - The battle for the can market
 - The new world of plastic bottles
 - Fiber containers replace wooden barrels
- * Feature Articles :
 - Insufficient capital? Try leasing
 - Offshore pipeline loads iron ore
 - Vehicles top 28 million
 - How do you spark a bored worker?
 - Control study cuts maintenance costs

● INDUSTRIAL WORLD, December 1971

- * Feature Articles :
 - Special Report : Small computers find big uses
 - B.D. Garware : He introduced plastics to india
 - More steel for Argentina
 - Plastics' show off in Duesseldorf
 - Fluidic sensors triple Production
 - Furnace keeps heat in, cools down fast
 - 1971 Index to Industrial World